



현대글로벌비스,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앞장

현대글로벌비스는 E-순환거버넌스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전자폐기물(E-Waste) 제로,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문병섭 현대글로벌비스 안전환경경영실장, 이충우 E-순환거버넌스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들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들은 아동들의 의료기관 방문, 등·하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두번째)이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금융투자협회, '사랑의 도시락' 1000만원 후원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식이치료를 받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진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왼쪽)과 이영경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종근당고촌재단, 글로벌 인재 40명 장학증서 수여

종근당고촌재단은 10~15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장학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종근당고촌재단 최정길 국장(왼쪽 두번째)과 하노이 약학대학 응우옌 하이 남 총장(왼쪽 세번째)이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한신대-KB국민은행, 금융서비스 등 상호협력

한신대학교는 KB국민은행은 11일 경기캠퍼스 장공관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종 금융서비스(수수료 면제·우대금리) ▲대학발전기금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재 한신대 부총장(왼쪽)과 조성창 KB국민은행 경기화성항남지역 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CJ제일제당, '기업지식재산대상' 장관상

IP경영 통해 K-푸드 글로벌 확장 '식품·바이오 분야 리딩기업 공고히'

CJ제일제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기업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식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기업지식재산대상'은 지식재산(IP)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전략을 공유·확산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IP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CJ제일제당은 K-푸드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IP를 확보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에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보유한 2만건 이상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식품·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국내 특허 출원 1위 기업(대학·공공기관 제외)



김주석 CJ제일제당 법무실장(오른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2024 기업지식재산대상 수상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외)에 올랐으며, 국제 특허 출원은 7위를 기록해 한국 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톱 10에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은 다양한 혁신 제품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패키징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지난 20년간 핵심 기술인 '코리넨균 활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12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다.

CJ제일제당은 2022년부터 IP를 통해 사업·R&D 전략을 제안하는 IP 액셀러레이션 활동을 이어오는 등 차별화된 IP 경영을 펼치고 있다. IP 액셀러레이션은 시장의 다양한 IP 데이터를 분석해 신규 사업을 위한 제품·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선 위원회', '상표 분야 제도 개선 협의체' 등 국내 IP 분야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김주석 CJ제일제당 법무실장은 "CJ제일제당의 차별화된 IP 경영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독보적 IP 경쟁력을 통해 식품·바이오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상명대 정진우 교수 산자부 장관 표창

상명대학교는 정진우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15일 개최된 '2024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정진우 교수는 2006년부터 ITU-T SG13전문위원(Future Network 전문가)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협업해 5G, 6G, 메타버스 분야 표준제정에 메인 에디터로 참여하여 해당 산업 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

SPC '해피쉐어' 캠페인

SPC는 희귀난치병 환아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해피쉐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귀난치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11월 30일까지 모금이 진행되며, 1만명 참여 달성 시 SPC그룹의 지원금 2000만원과 고객이 기부한 해피포인트가 전달된다. 기부된 금액은 희귀난치병 환아들의 의료비와 가족 생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환경부, 천안시·신안군 등 '그린시티' 6곳 시상

고양시, 예천군, 김해시 등 선정

환경부는 오는 17일 충남 천안 서북구 천안시청에서 '제11회 그린시티 시상식'을 개최하며, 환경 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충남)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전남)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

(대구), 고양시(경기), 예천군(경북), 김해시(경남) 등 4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받은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모델) 창출, 물 기반시설(인프라)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

생생물 2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류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다회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신세계L&B 디자이너 사회진출 지원

신세계L&B가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산학협력 프로젝트 '영디자이너+기업 브랜드 전시'를 통해 청년 디자이너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디자이너+기업 브랜드 전시'는 국내외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들이 협력해 신규 브랜드 및 제품을 개발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올해 14개 팀이 참가한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2024 DDP 디자인론포제어'에서 브랜드 팝업전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공간 컨셉트 키워드를 반영해 와인의 맛을 표현한 오브제와 패브릭을 배치해 감각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각과 촉각을 활용해 새로운 와인 구매 경험을 제공,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전자, 멕시코서 업사이클링 캠페인

'디자인 워크 멕시코' 참가

LG전자가 멕시코에서 현지 영제네레이션(YG) 세대와 함께 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는 내달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워크 멕시코'에 참가해 현지 사립대학인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와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업사이클링은 부산물, 폐자재와 같은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LG전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멕시코 행사장과 이베로대학 캠퍼스, LG전자 멕시코법인 사무실 등 멕시코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했다. 수거한 의류는 깨끗하



LG전자는 내달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워크 멕시코'에 참가해 멕시코 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하고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

게 세탁 후 토트백과 인형 등 굿즈로 업사이클링해 현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LG전자 측은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YG 세대를 위한 고객 경험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교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멕시코에서 캠페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에어부산 기내 특별 연주회 개최

에어부산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에어부산은 사내 동아리 '블루하모니'와 부산 문화예술단체 '나누리월드' 소속 장애인 오보이스트가 함께 기내 특별 연주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한 연주자는 부산 문화예술단체 나누리월드 소속 발달 장애인 연주자 윤세호 오보이스트다. ▲카자뷰 ▲벨라 판타지아 등을 연주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인사

◆남도일보 △이건상 뉴미디어국장(이사대우)

부음

- ▲김계분씨 별세, 이원욱씨 장모상 = 1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2-3410-3151
- ▲김장수씨 별세, 김성경(창녕군 문화예술과 과장)씨 부친상=16일, 창녕군 남지읍 남지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055-526-5788
- ▲정태화씨 별세, 정연수(김앤장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연옥(아진피앤피 사장)·숙경씨 부친상 = 16일,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53-620-4647